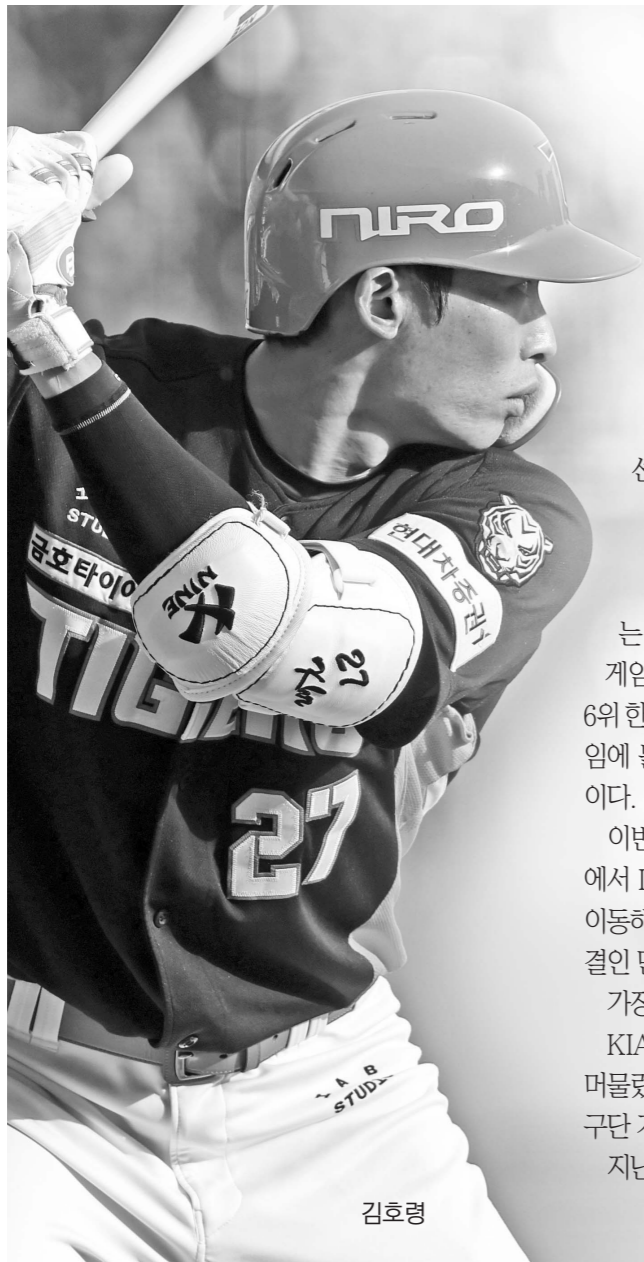


‘식어버린 방망이’ KIA, 타격 반등으로 중위권 지킬까



프로야구 전망대

KIA타이거즈가 타격 부진 극복과 함께 중위권 수성에 나선다. KIA는 지난해 주중 한화이글스에 루정시리즈를 당한 뒤 주말 두산베어스에 게도 1승 2패를 기록했다. 그 결과 34승 1무 31패로 승률 0.523을 기록, 리그 4위 자리는 유지했다. 중위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선두 LG트윈스와 2위 KT위즈, 3위 삼성과 이온즈가 상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KIA는 5위 두산에 불과 0.5 게임 차로 쫓기고 있다. 6위 한화와의 격차도 1.0게임에 불과해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일정도 만만치 않다. KIA는 주중 광주에서 LG와 3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수원으로 이동해 KT와 맞붙는다. 상위권 팀들과의 연속 대결인 만큼 순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고민은 타격이다. KIA는 지난해 팀 타율 0.205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OPS(출루율+장타율)도 0.592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6경기에서 15득점에 그쳤고, 최근 4경기

에서는 모두 2득점 이하에 머물며 공격력 저하가 뚜렷하다. 주축 타자들의 동반 부진도 아쉽다. 올 시즌 리그로 활약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박재현은 6월 들어 8경기 타율 0.038에 그치고 있다. 베테랑 김선빈도 6월 7경기에서 타율 0.167로 주춤하다. 김도영은 8경기에서 타율 0.333을 기록했지만, 기록이 있다. 김호영이 8경기 23타수 9안타 1홈런 2타점 타율 0.391로 활약하고 있지만,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외국인 타자 아델리니과의 계약 연장이

였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도 13일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로 시즌 3승을 수확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LG와 맞붙는다. LG는 현재 41승 24패 승률 0.631로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다. 팀 평균자책점은 4.41로 KIA(4.04)를 밑돌지만, 팀 타율은 0.272로 KIA(0.261)를 앞서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도 LG가 6승 2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LG는 16일 웰스를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시라카와를 선발로 투입한다. LG와의 일정

16~18일 광주 LG전...19~21일 수원 KT전 주간 ERA 5위·타율 10위...득점 끌어올려야

무산되면서 당분간 외국인 타자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중심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타자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마운드 역시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다. KIA의 지난해 팀 평균자책점은 4.33으로 리그 5위였다. 다만 선발전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다. 황동하는 지난 9일 한화전에서 6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따내며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

을 마친 KIA는 주말 수원에서 KT와 3연전을 치른다. KT 역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강팀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5패로 KIA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연속 루정시리즈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KIA가 이번 주 6연전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단오대회 ‘백두장사’ 등극

결정전서 서남근 3-0 완파...개인 통산 20번째 꽃가마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위더스제약 2026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지난 14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백두장사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서남근(수원트레시청)을 3-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김민재는 개인 통산 20번째(백두장사 17회·천하장사 3회) 꽃가마에 올랐다. 김민재는 이번 대회 8강에서 장성연(제주특

별자치도청)을 밀어치기와 들배지기로 제압하며 4강에 올랐다. 4강에서는 장성우(MG새마을금고씨름단)에게 잡채기를 당하며 첫 판을 내줬으나, 연속 들배지기를 적중시키면서 2-1로 백두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 결정전에서는 김민재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첫 번째 판에서 김민재는 잡채기로 첫 판을 가져오며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두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를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김민재는 마지막 세 번째 판에서도 거침없는 들배지기로 상대를 제압하며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우승을 확정 지었다. 김민재는 “지난 광장대회에서 장성우 선수에게 패했던 경험이 더욱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재밌겠다. 실렌다’는 말을 스스로 되새기며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늘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한청구 기자 hck1342@gwangnam.co.kr



‘위더스제약 2026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 사진제공=대한씨름협회

광주FC, 수비수 장성한 임대 영입 U-23 국대 선발...수비 멀티 자원

프로축구 광주 FC가 젊고 유망한 수비 자원을 품으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광주는 15일 수원 삼성에서 활약하던 풀백 장성한(21)을 임대 영입했다. 장성한은 용인시흥구센터 출신인 장성한은 학창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다.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독일 명문 구단인 FC 바이에른 뮌헨의 글로벌 육성 프로젝트인 ‘FC 바이에른 월드 스쿼드’ 1기에 선발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성장했고, 올해는 AFC U-23 아시아컵과 아시아게임 대표팀에도 선발되며 차세대 수비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한은 2023년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24시즌부터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경험을 쌓았고, 현재까지 K리그 통산 26경기에 출전했다. 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 전술 운용의 폭을 넓혀줄 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한은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수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적극적인 대인 수비와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측면 수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장성한은 많은 활동량과 성실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춘 선수로 팀 전술 수행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정적인 수비력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통해 측면 수비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한은 “광주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팀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팬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솔, 한국여자오픈 제패...시즌 첫 2승 고지 양윤서 1타차 제압...상금·대상·신인왕 1위 질주

‘슈퍼 루키’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2승 고지를 올렸다. 김민솔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숏길 코스(파71)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제4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5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4언더파 280타를 찍은 김민솔은 아마추어 국가대표 양윤서(3언더파 281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 시즌 iM금융오존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민솔은 이번 우승으로 가장 먼저 시즌 2승을 달성했다. 개인 통산 승수도 4승으로 늘렸다. 우승 상금 4억원과 1억3000만원 상당의 SUV를 받은 김민솔은 시즌 상금 7억7000만원을 쌓으며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1위에도 올랐고, 신인왕 경쟁에서도 선두 자리를 더욱 굳혔다. 여기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과 일본 내셔널 타이틀 대회 일본여자오픈 챔피언십 출전권까지 확보하며 의미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를 더했다. 승부는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김민솔과 양윤서는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김민솔은 2번 홀 버디 이후 안정적인 파 행진을 이어갔고, 양윤서도 전반에 타수를 줄이며 맞섰다. 10번 홀에서 양윤서가 보기를 범하며 김민솔이 단독 선두로 나섰다. 12번 홀 도중 뇌피 예보로 경기가 중단되며 변수도 생겼다. 양윤서가 14번 홀에서 파를 놓친 사이 김민솔은 파를 지키며 격차를 2타로 벌렸다. 이어 15번 홀에서도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향한 결정적인 발판을 놓았다. 양윤서가 17번 홀 버디로 추격했지만 김민솔은 마지막 18번 홀 보기를 범하고도 1타 차 우승을 지켜냈다. 한편 2008년 우승 이후 18년 만에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한 신지에는 최종 합계 3오버파 287타로 전우리, 신다인, 최예분과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장유빈, KPGA 클래식 정상...1년 8개월 만에 우승 LIV 실패 딛고 국내 복귀 후 통산 4승 달성...완벽하게 반등

지난해 한국 선수 최초로 LIV 골프 무대에 진출했던 장유빈이 국내 무대 복귀 후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장유빈은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북서코스(파72)에서 열린 KPGA 클래식 위드 아임비타(총상금 7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를 기록해 10점을 획득했다. 최종 합계 49점을 기록한 장유빈은 박은신(45점)을 4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며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차지했다. 유승규는 40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닌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버디는 2점, 이글은 5점, 엘버트루스는 8점을 부여하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으로 계산해 총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장유빈에게 이번 우승은 더욱 특별했다. 그는 2024년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 대신 LIV 골프행을 선택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2025시즌 LIV 골프 13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밖의 성적에 머물며 개인 순위 53위에 그쳤고, 결국 2026시즌 출전권 확보에도 실패했다. 국내 복귀를 결정한 장유빈은 지난 4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을 통해 KPGA 투어에 돌아왔다. 우리금융 챔피언십 공동 2위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후 다섯 차례 대회에서 톱10 진입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시즌 8번째 출전 대회였던 이번 KPGA 클래식에서 완벽하게 반등했다.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로 오른 장유빈은 최종일까지 리더보드를 지켜내며 2024년 백승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 이후 1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통산 네 번째 KPGA 투어 우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1000점을 획득한 장유빈은 누적 2376.50점을 기록, 선두 문동현(2391.67점)을 15.17점 차로 추격하며 2위로 올라섰다. 상금 순위 역시 5위(3억942만3782원)까지 상승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